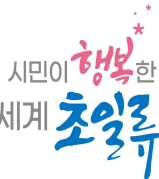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인천	
		배포일자 2023년 8월 23일(수) 총 2매			
담당 부서	재정관리담당관	담당자	• 부채리스크관리팀장 이선희 ☎440-1671 • 담당자 전주원 ☎440-1674	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 지역개발채권 취급, 신한·농협은행 전 지점으로 확대

- 취급지급 57개소 → 219개소(신한, 농협)로 확대, 162개소 증가 -
- 시민과 기업들의 접근성 높아지고, 시간과 비용 절감 기대 -

인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려는 인천시민과 기업들의 취급은행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8월 21일부터 인천지역개발채권 취급은행인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을 지역 농·축협까지 포함해 인천지역 전 지점 219개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.

지역개발채권이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인·허가 또는 건설공사·용역·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. 조성된 기금은 도로 건설·유지보수, 상·하수도,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활용한다.

그 동안 인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려면 인천지역에서는 신한은행에서만 채권을 매입해야 했다. 다만 도서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화군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, 옹진군은 농협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었다.

이처럼 취급은행의 제한이 있다 보니 채권을 매입하려는 시민과 기업들은 접근의 불편이 있었고, 인천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지역의 신한은행은 물론 모든 농협은행(지역 농·축협 포함) 전 지점에서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취급지점을 당초 57개소에서 219개소로, 162개소 확대하기로 했다.

※ 당초 : 57개소(신한 54개소, 농협 3개소) → 변경 : 219개소(신한 54개소, 농협 165개소)

시의 연간 지역개발채권 발행 건수는 약 15만 건으로, 이번 확대 시행으로 가까운 곳에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려는 시민들과 기업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.

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“지역개발채권 취급은행 확대로 인천 시민과 기업이 보다 더 편리하게 채권을 매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[지역개발채권 개요 및 현황]

- (개념) 시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, 인·허가, 건설공사·용역·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
- (법적근거 및 종류) 지방공기업법 제19조, 지역개발기금 운용조례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등
 - (지역개발채권)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 건설·유지보수, 상하수도, 주민복지증진사업 등에 활용
- (금리) 2.5% 복리
- (상환) 5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
- (연간 발행건수) 약 15만 건